

행복이 된 고난

운동력이 있거나 생명력이 있는 천지만물 모든 것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반드시 처음(과거)과 끝(미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AM)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I AM WHO I AM, *ehyeh asher ehyeh*, **אֶהְיֶה אֲשֶׁר אֶהְיֶה**) 한 분 뿐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인 바에야 미래의 어느 땐가는 반드시 죽음(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곧 인생의 끝을 부정하고 오로지 과거와 미래의 영원한 순환(循環)으로 보고 있는(곧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불교(佛敎)나 증산도(甞山道)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색즉시공(色卽是空), 후천개벽(後天開闢) 등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단어들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티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거쳐 종당에는 현재(천국)에 이르게 되는 일순(一巡)의 진리(한 번 지나면 또 다시 거스를 수 없는)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위에서

불교나 증산도의 사람들은 영원(永遠)을 살고 있는 셈이 되며, 우리는 순간(瞬間)을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간(인생)을 비유로 한 번 셈하여 보겠습니다. 국가통계(KOSIS)에 비추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 여자가 84세, 남자는 이보다 조금 낮은 77세라고 합니다. 남녀평균 잡아 80세를 인간수명이라고 보면 그다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축구경기(전후반 90분)에 비교하면 필자의 경우 후반전 12분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의 심판되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저리타임(Injury Time)을 허락해 주신다면 대략 후반전 7-11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구경기 몇 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무거운 이야길 수 있어도 마치 축구경기처럼 짧고 짧은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간직해야할 ‘인생의 목적’입니다. 곧 크리스천 된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하 잔잔한 마음을 품고 한 번 되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자가 사는 지역인근에 팔공산(八空山)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곳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활동무대로서 세간에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자락에 ‘갯바위’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봉석조여래(冠峰石造如來)라는 부처가 좌정하고 있는데, 세간에서는 이 부처 앞에 공(供)을 드리면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영험설(靈驗說)이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때마다 입시철이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게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룹니다. 이처럼 팔공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이유는 모두가 갓바위 때문인 것은 누구나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편 이곳 인근에는 무속산당(巫俗山堂)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도 산자락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보통이었는데, 필자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도 대략 4-5곳 정도가 눈에 띌 정도이다 보니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도심 한복판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 대할 수 있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중 한 곳에 들러 사환(使喚)에게 물어보니 곳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종류도 천차만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채수굿(채 물이나 무사안녕), 예탐굿(축일의 기원), 우환굿(병이나 근심걱정의 탈피), 예방굿[사전에 액(액)을 물리침], 내림굿(신에게의 기복), 진작굿(보응을 통한 기복), 당굿(동네 안녕), 허주굿(잡귀를 물리침), 수왕굿(죽은 사람의 명복) 등이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징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볼 요량이면 산당을 찾는 사람이 아마도 부지기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복(祈福)은 비단 불교나 무속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곧 겉으로 드러난 외관(外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매한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필자 동네의 한 치킨집에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08:07)의 성구액자(聖句額字)가 입구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길 건너 중국음식점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라는 글귀가 주방 앞 창문 정면에 걸려있기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웃도어매장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04:13)를 비롯하여, 빵집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09:23), 안경점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02)는 등의 수많은 성구가 그것도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에, 이 모든 행사의 저변에 숨은 뜻이 있다면 아마도 ‘재물’(財物)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이나 ‘만사형통’(萬事亨通)에 대한 기원[기복(祈福)]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필자가 이야기한 이 땅위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재물의 복, 무사안일, 만사형통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한데 묶어 ‘행복’(幸福)이라고 칭한다면 무리가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혹자가 명예, 지위, 학벌, 건강 등은 여기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한다면 이 또한 행복의 범주에 일단 담아두기로 하겠습니다.

화제를 잠시 바꿔 보겠습니다. 그 누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아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에 는 우리가 따른다고 보아 모두 다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히 그렇다면 ‘평안’, ‘만남’, ‘축복’, ‘소망’, ‘복’, ‘사랑’, ‘승리’ 등이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되물기에 ‘인생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앞선 ‘갓바위’나, ‘재수굿’ 등이나, ‘성구액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가 자신을 위한 기복(祈福)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부처나 무속신이나 하나님의 존재이유는 모두가 우리(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또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보다 정확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객체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란?

자식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고한 형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재물의 복은 물론이고 이 땅 위에서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마 07:07)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낱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결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이루게 되었다면 이것이 크리스천 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이 되기에 마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행복이 되기에 마땅하다면, 곧 이상의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달성하였다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이룬 것이나 진배없을 것이고, 달리 덜함이 있었다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만약 ‘누구나’ 여러분이라면 그러기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행’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둘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잠깐 바꾸어 보겠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전자)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1억을 가진 사람(후자)이 더 행복할까요? 명문대에 다니는 자식을 둔 부모(전자)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생활고를 벗어나고 자 직업전선에 뛰어난 자식을 둔 부모(후자)가 더 행복할까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지위와 명예를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전자)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그늘져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후자)이 더 행복할까요?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가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은 앞서 우리가 가두어둔 행복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자가 더 불행하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의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 곧 ‘행복’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요?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저 멀리 요원(遙遠)한 곳에 처박아 두고 그토록 우여곡절(迂餘曲折)에 곡절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간에 흘렸던 눈물은 헛된 것이었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들거나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음을 바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나이반도(Sinai Pen)와 같이 곤고한 이 세상을 지쳐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영원히 이를 수 없는 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척박한 골고다의 구렁을 거쳐 끝내 가장 비참하게 이 땅위에서의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도 어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결같은 ‘고난’이 다름 아닌 ‘행복’(구원) 속에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고난’이 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인생의 목적’으로 곧추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위에서 예수님의 ‘행복’은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애(公生涯) 목적 또한 고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행복에 목적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하 고난을 마주하실 때마다 그토록 행복해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음미하여 바로 새겨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08:17, 개정)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고후 01:05-0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마 17:12)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눅 16:25, 개정)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01:29)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눅 24:26)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행 03:18)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01:12)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살후 01:05)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02:03)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벧전 04:01)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04:13)

크리스천 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쳐가는 곤고한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곧 고난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이셔서 그나마 이 땅위에 거하게 하고 계신 이유가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려는데 뜻을 두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길은 마땅히 고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 사람생각으로는 결단코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기꺼이 행복으로 맞으셔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되짚어 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위에서의 축복(행복)은,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후사(後嗣)도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것들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고난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으로서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안타깝게 애쓰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기쁘고 자원(自願)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빛나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의 징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메마른 시나이광야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쳐 가신 척박한 골고다 언덕보다도 더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지칠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주저 않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죄 많은 우리 사람의 인생길로서, 본래 그 길은 그런 길이고 또한 그런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고자, 찾아가고자, 애쓰는 삶,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된 자들의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 이 땅위에 거하는 동안 넉넉하고도 풍성한 고난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08:26)

‘고난의 길’을 바로 찾아 그 길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또한 그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때마다 그토록 소원하며 간구하여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고난의 길)을 이 땅위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라야 천국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들과 함께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으로서 ‘고난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왜곡되고도 그릇된 현상을 꼬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접하고 있는 행복은 대개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곁에 견고히 매어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위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데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기도의 제목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편으로서 ‘천국’, ‘소망’, ‘축복’, ‘감사’ 등의 산물로서 ‘재물’, ‘지위’, ‘명예’, ‘형통’ 등을 때마다의 강론이나 설교에 붙여 두고 있음은 어찌 보면 이 같은 실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해 두고 있는 증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옥’, ‘공의’, ‘심판’, ‘멸망’ 심지어 ‘고난’ 등의 산물로서

‘희생’, ‘속죄’, ‘참회’, ‘고백’ 등은 그다지 입에 담아두길 꺼려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필자의 편협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유는 외관상 이것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으로 취급하기에는 일견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뜻 모를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녕 그렇다면 이 같은 행사는 실상(고난)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허상(앞서 가두어둔 행복)만 앞세워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인생의 목적으로서 고난이 어디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성구를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대로 라면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비아냥조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성구는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로 보고 있는 의인 욥(Job)의 친구 빌닷(Bildad)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어려움(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지켜보면서 욥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말이 버젓이 인생의 지표(목적)가 되어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버젓이 걸려있었을까요? 그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초 치킨집에 개업심방이 이루어졌다면 목사님은 이 성구를 보며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했을까요? 그도 아니면 정히 모르고 있었을까요?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알고는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처럼 왜곡된 인생의 목적을 걸어두거나

걸어두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러한 행태가 이집 한 곳도 아니고 수 천 수 만 곳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그간에 본질(고난의 실상)을 외면하고 허상[기복(祈福)으로서의 행복]을 강조하거나 강조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개업예배에 선물로 이 성구액자(“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를 가지고 갔다면 이를 우리가 어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차마 성구액자를 떼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언감생심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했지 않을까요?

또 다시 고백하기에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성구액자를 떼라 떼지 말라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적으로서 고난을 추상같이 드러내거나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혹여 고난을 이야기하면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을 걱정해서 입니까? 고난을 이야기하는 무서운 목사가 되기 싫어서 입니까? 성스러운 교회에 기복신앙(祈福信仰)을 끌어다 놓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를 통해 교회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뜻 모를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애로운 목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교만(驕慢)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하 한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왜곡된 행복을 위한 기도의 실상입니다.

“제자훈련에 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도제목은 ‘교인 3000천명 달성’과 ‘해외선교사 30명 파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중에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면 30, 60, 100배의 축복과 함께 자녀들에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땅에 꿰고 이 땅을 밟아 이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매일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을 모르는 원근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곳 성전 또한 차고 넘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불과 3년 만에 그 집사님의 사업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내로라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이나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름없이 그 집사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창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였거나 보아 온 모든 행사(뜻 모를 기복으로부터 비롯된 죄)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한 우리 크리스천의 죄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르게 계도(啓導)하지 못한 목회자의 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인생의 목적으로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바로 세워 점점 땅에 곤두박질치고 있는 크리스천과 개신교의 위상을 뼈를 깎는 회개와 참회를 통해 하루속히 곧추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필자 또한 크리스천 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서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던가요? 지금 이 시간, 위와 같은 뜻 모를 기도가 아닌, 이하 필자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짓밟히게 해 주시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나가 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사모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 앞에 낱알이 이를 바로 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고난의 길에서 그들이 넉넉히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들이 연약하여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사들로 인치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교회와 후사들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중의 괴수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죄인의 죄를 결코 우리의 후사들이 뒤따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감싸고 보듬을 수 있도록 더한 영력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쪼개고 쪼개는 가운데 그늘진 세상을 부둥켜 앉을 수 있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우리 삶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속에서 결코 남음이 없도록 지나친 것이 없도록 넘치는 것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모두를 예수님을 닮아 고난의 길에 던져둘 수 있는 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